

수산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55년 창립된 한국수산학회는
 전체산업중 수산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회원수의 증가 및 학술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업이 원양어장의 상실,
 연안어장의 자원고갈 등으로
 위기에 직면, 본 학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학의 발전을 위해서
 수산과학의 첨단과학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산과학연구의 선봉장 **한국수산학회**



卞在亨
 (한국수산학회 회장)

수산학회의 연혁과 현황

우리나라에 학문으로서 수산과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부산에 「부산고등수산학교(4년제 전문대학)」가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 수산학을 전공하고 수산관련 학교나 관공서 등에 진출했던 초창기 수산 전문가들이 뜻을 같이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수산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55년에 한국수산학회를 창립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여러가지 열악한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만큼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학회 회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기 학술논문집의 발간, 심포지엄의 개최 등 학회 고유의 학술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수산업의 발전과 함께 크게 약진한

수산학회는 1982년에 이미 사단법인체로 체제를 일신하고, 우리나라 수산과학을 선도하는 학회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다. 그 후, 학문분야의 전문화·세분화 및 다른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도입·응용하는 경향에 발맞추어, 수산과학의 전문 분야도 크게 넓어졌으며, 그에 따라 세분화된 수산 관련 전문학회들이 연이어 창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창립된 수산관련 학회로는 어업기술학회, 양식(養殖)학회, 조류(藻類)학회, 어류(魚類)학회, 어병(魚病)학회, 수산교육학회 등이 있다.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수산대학교 내에 있으며, 학회의 살림은 1981년도에 고(故) 원종훈회원이 회사한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임대료와 회원의 회비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꾸려가고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5천만원 정도이다. 학회 본부 임원진은 회장 1인, 부



회장 4인, 이사 15인이 있으며, 학회 실무는 간사회와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학회의 학술활동

학회는 국내 대부분의 학회와 마찬가지로 춘·추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통상 춘계학회는 학회 본부가 있는 부산 지역에서 개최하고, 추계학회는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는 보통 4개분야 즉, 양식 및 해양생물 분야, 수산이용가공 분야, 어업분야, 해양 및 환경분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춘·추계에 걸쳐 외국인 특별초청강연, 분야별 특별강연, 심포지엄 등의 학술행사를 내실있게 갖고 있다.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는 논문편수는 연간 1백20여편에 이르며, 수산과학 관련학회들과의 공동학술행사를 갖는 경우에는 약 2백여편이 넘는다.

학회의 정기학술지 「한국수산학회지」는 연간 6회 발행되고 있으며, 연간 게재 논문편수는 약 80편 정도이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회지는 신속하게 회원들에게 송부되고 있음은 물론, 1백여곳의 외국 관련단체에게도 보내지고 있다.

그리고 학회에서는 수산과학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고무·격려하기 위하여 학회 우수논문상과 원종훈학술상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 학회는 회원들에게 학회 사무국의 정보 전달은 물론 관련 학문 분야의 뉴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학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수산학을 연구하는 과학인들

과 실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 「산학수산지」(産學水産誌)도 발간해 오고 있다.

수산과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그 연구 또는 학술활동이 활발하다. 전통적으로, 일본 수산학회와는 학회 본부는 물론 회원 상호간에 활발한 학술교류 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양학회 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중국 수산학회와는 1992년도부터 정보교환을 해 오고 있으며, 상호 방문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수산학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아시아 수산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행사에도 본 학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산업의 미래와 학회의 역할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분야중 생산과 수출 양측면에서, 맨 먼저 선진국의 수준에 올라선 것이 수산업이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힘은 일찍 개화·발전된 수산과학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자원내셔널리즘에 따른 원양어장의 상실과 연안어장의 자원고갈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산과학 즉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수산과학은 '수계(水界)에 서식·분포하고 있는 생물자원의 생산을 완전하게 하고, 이것을 개발·이용하여 인류생활에 도움이 되게하는 방법과 이에 부수되는 문제를 연구하는 하나의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수산업을 구하는 것은 본학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접 학문분야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학회는 다른 학문 분야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산과학의 첨단과학회는 물론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선봉장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현재 수산과학에 필요한 타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은 다음과 같다. 즉, 최근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목장화 사업'을 위해, 첨단 공학기술과 수산업을 연결하는 마리노베이션(marinovation)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생산시스템기술, 복합형 자원배양기술, 환경탐색 및 제거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해양생물공학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과학기술을 수산과학이 모두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첨단 공학기술분야의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하겠다.

수산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수산과학 분야 연구의 선봉장 역할을 다함은 물론, 타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업적을 수산과학에 도입·접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타 학문분야의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충고와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㉞